

MEXICO 어린이 한인신문



한인신문에서 발간합니다!

재외동포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인 우리 아이 정체성 살리기.
한인신문사에서 곧 발간될 자매지 <Mexico 어린이 한인신문>은
자녀를 둔 독자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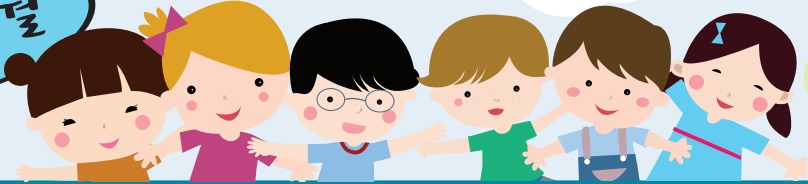
- 한국말 제대로 알기
- 만화로 보는 한국사
- 한국의 예절, 문화
- 한국 대학 입시와 대비
- 생활 속 과학의 원리

위의 내용 이외에도 한국과 멕시코를 비롯한 전세계 소식들을
실을 예정입니다.

알차게 만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Mexico 어린이 한인신문>의 샘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픈 동생 업고 64km 걸어간 ‘헌터 간디’ “동생 자유롭게 걷는 날, 곧 오겠지요?”



여러분은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는 편인가요? 사소한 일로 종종 말다툼하지는 않나요? 늘 가까이 있기에 서로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형제, 자매는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지요. 내 소중한 형제와 자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소홀해선 안 되겠지요?

미국에는 자신의 남동생을 무척 아끼는 소년이 있답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 스스로 잘 걷지 못하는 동생을 업고 무려 약 64km나 걸어간 소년 헌터 간디(14)를 소개합니다.

아픈 동생 업고 걸겠어요

헌터는 미국 미시간 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헌터의 동생 브레이든(7)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지요. 뇌성마비란 뇌가 다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병. 헌터는 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동생이 늘 안타까웠 습니다.

헌터는 동생을 업고 걷기로 해요. 걸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뇌성마비가 어떤 병인지 알리고, 뇌성마비 환자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었거든요. 헌터의 걷기운동은 ‘뇌성 마비 걷기’(Cerebral Palsy Swagger)라고 이름 지어졌어요.

헌터의 계획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사람들은 뇌성마비가 어떤 병인지, 뇌성마비 환자들이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헌터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세상에 전해 지는 순간이었어요.

〈헌터의 이야기는 2면에 계속...〉

[출동! 어린이기자]

‘카카오프렌즈’ 그린 권순호 씨 만나다 ‘노란 단무지’가 토끼처럼 변신!

카카오프렌즈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캐릭터 디자이너 권순호 씨(38). 권 씨는 카카오프렌즈 외에도 싸이 캐릭터, 시니컬토키 등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 냈다. 동아어린이기자인 서울 광진구 서울용마초 6학년 염희진 양과 인천 서구 인천해원초 4학년 상정태 군이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권 씨를 만났다.

요즘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친구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낼 때 다양한 표정을 가진 캐릭터 이모티콘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재미있게 표현한다.

〈권순호 디자이너의 이야기는 3면에 계속...〉



마루코와 함께하는 룰루랄라~ 국어교실

마루코의 일기
2014년 7월 29일 수요일 날씨

낮에 과자가게에 갔다가 주인이 없는 강아지를 만났다. 강아지를 너무 기르고 싶었지만, 엄마는 안된다고 하셨다. 나는 강아지를 기르 게 해주면 엄마말을 잘 듣겠다고 약속 하였고, 엄마는 약속을 잘 지키면 생각 해보겠다고 하셨다.

나는 다시한번 강아지를 보고싶어서 과자가게에 갔더니 강아지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 너무 놀란 나머지 강아지를 찾아 헤메다가 내 친구 미유의 도움으로 강아지를 찾게 되었다. 강아지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집으로 데려왔 지만 엄마의 불호령에 다시 집을 나왔다.

‘쿠우’라고 이름 붙인 강아지와 해 질 녘 까지 강가에 서 보냈는데, 강가에 오래 있었던 탓 인지 몸살이 나버렸다. 아픈 와중에 나의 진심 을 안 엄마가 드디어 강아지를 키워도 된다고 승락하셨고, 신이나서 강아지를 데리러 과자 가게로 갔다.

그러나 강아지는 이미 동네에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의 품에서 행복해하고 있었다. 나는 너무 속상했지만, 가족이 있는 나와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 중 누가 더 강아지가 필요할까를 생각하며, 강아지를 할머니께 양보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루코가 알려주는 오늘의 단어!

넙 : 의존명사

1. 방향을 가리키는 말
- 그가 북 넙으로 달아났다.
2. 어떤 때의 무렵.
-해뜰 넙에 일어났다.

와중 : 명사

1. 흐르는 물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2.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 많은 사람이 전란의 와중에 가족을 잃었다.

〈한글학교 소식〉

즐거운 방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재 멕시코 한글학교 입니다. 오늘 6월 21일 수업이후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개학은 8월 30일이며, 9시 50분까지 등교시간입니다. 건강하고 보람있는 방학 보내세요!